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0호 【루게 제2488호】 주제104(2015)년 4월 20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최룡해 동지, 리재일 동지, 전용남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의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백암군의 서두수상류에 3개의 계단식발전소로 건설되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우리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대상이다.

주체혁명의 성지 백두대지를 더욱 빛내는데 이바지하게 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굳게 믿으시고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주신 영예로운 전투과업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펴 펼쳐 날리며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으로 용약 달려온 우리의 미더운 청년전위들은 결집하는 엄숙한 시련과 난관들을 박차고 발전소건설에 청춘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돌격대지휘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오느라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다고, 발전소건설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외국방문을 마치고 길로 불편하신 몸이었지만 이런 산세험한 곳까지 찾아오시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저러온다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걸을수록 정말로



있는 량강도의 인민생활과 경제문제를 푸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1호, 2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은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청년동맹을 비롯한 해당부문에 발전소건설을 경제실무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자면 세멘트와 강재, 연유를 비롯한 건설용자재와 발전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해주며 수송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에서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과 함께 전당

우리 장군님 같은신분은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갈마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힘찬게 목을 가로지르며 솟구치고있는 1호발전소 언제를 바라보시면서 그동안 어려운 속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고, 백두대지의 흑한속에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사랑의 젖줄기이며 조국의 만년제부인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하루 빨리 완공하자는것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정형과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이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기본건설대상인 1호발전소 콘크리트연제공사를 다그치면서도 2호발전소 사석연제건설을 완전히 끝내고 2호발전소 물길굴건설도 마감단계에서 진척시키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발전소건설을 립체적으로 전개해온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이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침수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을뿐 아니라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리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양묘장

을 꾸려놓고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하고있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에서 정양소와 후방기지 등을 자체의 힘으로 번듯하게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돌격대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위엄을 실천으로 받들려는 불타는 총정심과 나라의 전기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는 열정을 지닌 청년돌격대원들이기에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처음 맡아해보지만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시연군과 혁명전적지들이

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었으니 청년돌격대원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공사를 립체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조직지휘를 짜고들어 단계별, 대상별목표를 일정에획대로 점령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서도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강력한 력량을 건설장에 파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가 리 라 백 두 산 으 로

작사 리지성  
작곡 우정희

열정적으로 기백있게 (♩=138)

1. 봄 날 에 도 가 - 리 라 겨울 에 도 - 가 리 라

백 - 두 산 - 백 두 산 내 마음 의 고향 에

폭 풍 에 도 굶 힘 없 는 의 지 를 주 고 - (후렴)

신 - 념 을 버 려 주 는 혁 명 - 의 전 구 가 리 -

라 - 가 리 라 - 백 두

산 으 로 가 리 라 - 우 리 -

를 - 부 르 - 는 - 백 두

산 으 로 가 리 라 -

2. 꿈결에도 가리라 그 언제나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이 땅위에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  
영웅조선 승리의 길 향도하는 곳  
(후렴)
3. 한생토록 가리라 대를 이어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당을 따라 끝까지 갈 영광의 길에  
필승의 넋을 주는 태양의 성산  
(후렴)

##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무산광산연합기업소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과 폐석광사, 장거리벨트콘베아 《나》선 조업식 진행

우리 나라 골지의 철광석생산 기지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과 폐석광사, 장거리벨트콘베아 《나》선공사가 훌륭히 완공되었다.

결과 3대의 대형원추형파쇄기를 설치할데 대하여 추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이 빛나게 관철되었으며 철광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공사에 참가한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아래 무산광업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었다.

조업식이 1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입찰용내각부총리와 전승훈 환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판계부부 일군들,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업식에서는 김용광금속공업사의 조업사에 이어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배인 명승철, 무산광업건설사업소 기사장 연철민,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공장구축장이 결의로문을 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위력한 장조물을 일떠세운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무산광업건설사업소안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감사를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를 여러차례 찾으시고 기업소를 세계적인 철광석 생산기지로 꾸밀데 대한 웅대한 이상을 펼치시고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건설을 비롯한 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고

말하였다.

아버이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무산광업건설사업소의 로동계급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파강히 이겨내면서 조방운반계통인 장거리벨트콘베아 《나》선공사를 끝내는데 이어 조방처리용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건설과 폐석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상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철광광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라의 귀중한 살비인 대형원추형파쇄기들을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전력, 자재보장대책을 짜고들며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

리용하여 생산을 늘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탐사를 적극 앞세우고 최신과학기술에 의한 제갈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로진제갈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제갈능력을 더욱 높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 모든 일터를 더 잘 꾸리고 기업소 구내를 수리화, 원리화, 공인화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설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업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과 폐석광사 등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 170여만마리의 새끼연어를 놓아주었다

함경남도수산관리국아래 방류어업사업소들에서

최근 함경남도수산관리국아래 방류어업사업소들에서 인공수정시켜 총실히 자래운 170여만마리의 새끼연어를 여러차례에 걸쳐 바다와 잇닿은 강들에 놓아주었다. 자료에 의하면 몇백톤에 놓아준 새끼연어들이 바다를 회유하며 평균 3kg정도의 엄지물고기로 되어 강으로 다시 올라오고있는데 해마다 그 마릿수가 늘어나고 어획고도 높아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물고기를 오래동안 계속 잡을수 있게 수산자원보호사업도 계획적으로 하고 물고기잡이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실 바다는 큰 자연양어장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아래 우리 나라에는 연어를 비롯한 강오물성물고기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놓아주고 다 지란 맛초고 영양가높은 물고기를 잡는 방류어업사업소들이 동해와 립접한 강하천들의 곳곳에 꾸러졌다.

방류어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할 일념으로 함경남도수산관리국아래 방류어업사업소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강추위와 싸우며 알낱을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엄지연어들을 한 마리, 두마리 손상이 가지 않게 잡아, 이렇게 확보한 100여 마리들의 종자어로서 알낱이와 알수정 등 모든 공정에 세기되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많은 새끼연어를 받아낸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겨우내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 사물들을 95%이상 보장하였다.

보람찬 무렵의 나날 배합먹이 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한것을 비롯하여 1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고 배양장의 온도보장과 산소공급 등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었다.

얼마전 방류어업사업소들에서는 특색있게 만들어진 물고기걸을 따라 새끼연어들이 강으로 배를 지어 흘러가는 호호한 광경이 연이어 펼쳐졌다. 북청남천방류어업사업소가 맨 처음 50만마리의 새끼연어를 놓아준데 이어 신포동물천, 성천강, 단천남천방류어업사업소들에서 각각 수십만마리의 새끼연어를 동해와 잇닿은 강들에 놓아주었다.

함경남도수산관리국 일군인 송철수동무의 말에 의하면 그 회귀율이 단 몇몇만 되어도 리상적이라고 한다. 이번엔 놓아준 170여만마리의 새끼연어인 경우 자연양어의 방법으로 많은 양의 고급어족을 거저나 다름없이 얻는것으로 된다. 투자가 바다에서의 고기잡이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강하천이 맑고 세면이 바다로 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물고기생산은 더욱 늘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수산성과 함경남도수산관리국에서는 포구마다에 만년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기 위한 어군제를 파강히 전개하면서 방류어업부문에 힘을 넣어 가까운 몇해안에 힘들게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도록 전망성있게 일판을 벌리겠다고.

본사기자 전 성삼

## 벼모종류별씨뿌리기 70%계선 돌파

《위대한 장군님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력사를 대대손손 빛내어나가자!》라는 공동구호를 외치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각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벼모기르기에서 혁신적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월 중순현재 영양단지모, 영양알모, 영양맹상모 등 벼모종류별씨뿌리기를 70%이상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에서 물결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지 농업부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위대한 장군님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력사를 대대손손 빛내어나갈 불같은 각오를 안고 벼모기르기를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내밀고있다.

각지 농촌들에서 영농농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해당 지방의 자연기후조건과 구체적인실정을 고려하여 씨뿌리기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현장지도에 힘을 넣었다. 통천군에서는 기상기후조건이 수시로 달라지는데 맞게 일정계획을 질적으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현실성있는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씨뿌리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판산, 박천군에서는 생육기간이 길면서 낮은 온도에서 진행된 밭에서는 씨앗이 고르게 뿌려지도록 하면서 모내기나이를 고려하여 씨뿌리량을 정확히 정하고 일정계획을 수행해나가고있다.

함경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에서 밭상태모를 많이 기르는 조건에 맞게 병충해약대처를 철저히 세우면서 씨모기르기를 잘해나가고있다.

황해남도 안악, 연안, 배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성실한 땀을 바치는 참된 애국자가 될 뜨거운 마음으로 토양산도조절을 바로하며 박박관리, 온도관리를 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황해북도 사리원시, 은파군에서는 물주기를 바로하여 토양산도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벼모판관리를 힘을 넣고있다.

남포시에서 엄폐해를 막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우며 물관리를 잘하여 벼모기르기성과를 높여나가고있다. 시 일군들은 간식지는면적이 많은 조건에 맞게 모판자리를 다시 정하고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시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가릴한 전회의 불길속에서 전 시식량생산을 보장한 전세대농민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받받아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씨뿌리기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 년간계획, 상반기계획완수자들이 늘어난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로 돌고돌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국경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선사위원회의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천성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에서 년간계획, 상반기계획완수자들이 부쩍 늘어나고있다.

현재 공장적으로 11명의 년간계획완수자와 121명의 상반기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 여러차례 공장을 찾으신데 베풀어 주신 헌정은 사랑과 은총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에 펼쳐나신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로력적외력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현장에 내려가 생산자대중의 정성력을 총괄탐사하기 위한 혁신적정기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한편 원료와 자재보장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로동자들의 후방공급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직포종합직장의 로동계급이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8명의 년간계획완수자들을 배출한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의 직포공들이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사명관동지에서 주신 임무를 무조건 수행한

합일유격대 재포대원들의 그 정신으로 기대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걸어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달아주시신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퍼고 건방종합직장 로동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일념에 합리적이고 대승희생방법과 능률적인 설치기방법을 받아들여면서 매일 계획을 초과수행하였다.

방직종합직장의 로동자들도 년초부터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화학섬유방직종합직장에서 많은 로동자들이 상반기계획을 앞당겨 끝냈다.

## 박봉주총리 평양화학제품공장 현지료해

박봉주총리는 남포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촉매직장, 비료직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시비면도비료생산과 공급, 원료보장정형 등

생산을 높이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서 석탄수송화차들의 회귀일수를 줄일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고 해당대책이 강구되었다.

이에 앞서 총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돌고있는데 화학제품공장을 돌아보면서 인민의 사랑을 받는 친원적이며 기능적인 화학제품들을 적극 개발하며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벼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고있다.



-문덕군 통림협동농장에서-



박봉주총리 평양화학제품공장 현지료해



# 천출명장 김일성 : 미국을 슬프게 하다

## 나 딸 리야 벨 로 꼬 빼 또 바

전세계를 뒤덮고있던 두번째 세계대전의 화약배가 사라지자 유럽연군에서는 격진장을 제정한 사람만이 전쟁에 대하여 논할 도덕적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자주 울려나왔다.

그렇다. 타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찌하여 폭음소리 한번 들지 못한 이로서야서 필자자 그 도덕적권리를 뛰어넘어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의 전승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는가고 물을수 있다. 다년간의 언론활동과 사회활동경력이 그 도덕적권리를 벗어나게 하였는가 아니다.

1992년 4월 조선의 수령이신 김일성주석 탄생 8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우리 《근로하는 로씨야》 운동대표단성원들은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았다. 나는 지금도 그이의 걸출한 위인적품모에 매혹되어 탄복하던 그때를 잊지 못한다.

### 1. 수천년을 흔들어놓은 중대사변

나는 이 글을 세계현대사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된 중요시각에 대한 서술로 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력사의 벽시계는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2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조선의 전승과 미국의 패권이 온 지구에 선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흐르고있었다.

바로 이 시각에 조선의 천출명장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조선정전협정전문문건에 친히 비준을 하시었던것이다.

이 력사적순간의 목격자, 기록자가 되어 그것을 세상에 제일먼저 전한 외신기자들중에는 당시 쏘련기자도 있었다.

1952년부터 조선주제 《쁘라우다》지 특과기자로 활약한 올라지미프 톨스토예프였다. 그는 자기의 회상록에 이렇게 썼다.

《나와 나의 안해 마마라는 내가 50여년전에 찍은 조선정전협정문에 비준하는 친제정명장이신 김일성원수의 사진을 가보로 고이 보관하고있다. 그이께서는 흰원수베복을 입고계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오셨던 협정문이 들어있는 문서철을 받으시고 비준하시었다. 장대에서는 기쁨과 감격의 파도가 끓어올랐다. 모두가 김일성원수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내가 영광스럽게도 력사에 남긴 김일성주석의 모습은 이른바 《세계적인 강대국》과 맞서 청승한 공화국을 굳건히 지켜내신 20세기의 영웅, 위대한 정적의 수호자의 모습이었다.》

그렇다. 조선의 전승은 천출명장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승리였다.

72시간안에 조선을 정복할것이라고 장담하던 미국은 조선인민들이 평행듯이 그 72시간이 수백번도 더 반복되어 2만 7,000여시간으로, 날수로 1,129일로, 년수로 3년이 되어 저들이 패할것은 몰랐다.

《강대성》의 신뢰를 함급모자처럼 들고 다니며 자랑하던 대아메리카제국이 조선인민앞에 횡기를 들게 되고 내리막길의 시초에 들어서서 최대의 정치군사적비극을 통감할줄은 더더욱 몰랐다. 정전협정조인후 방승마이크알에 나타난 당시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수줍은 어조로 《대가는 컸다. 이것은 비극적인 것이었고 쓰라린것이였다.》고 토설하였다.

서방의 한 종군기자는 미국력사에서 항복에서 서명한 첫 패전장군이 된 클라크의 열혈에서는 《중전의 그 당당한 기개로, 위용도, 위신도 간곳없이 사라지고 두 줄기의 눈물만이 흘러내렸다.》고 썼으며 정전협정조인문건이 수표한 후 클라크는 슬퍼 울었다고 그의 늙은 어머니가 회고하였다 한다.

세계가 보듯처럼 미국의 《강대성》의 신뢰를 슬픔으로 바꾸어놓은 중대사변이 바로 조선에서 일어났던것이다.

조선의 1,129일의 전승이야말로 인류수천년사의 중대사변이라고 나는 주장하게 된다.

이제부터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세가지 근거에 대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

조선의 전승은 작은 나라가 대국을 이기는 력사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이것이 첫번째 근거이다.

스웨리에와 인디아사람들은 지난 수천년기간에 세계적으로 1만 4,500여치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1만 수천치의 전쟁은 대체 어떤 전쟁들이었는가. 제국들의 침략전쟁, 정복전쟁이 기본이었다고 본다.

바꾸어 말해보면 인류전쟁사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군사경제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 작은 나라들을 침략한 전쟁사였다라고 말할수 있다.

수천년 전쟁사의 이 거치른 흐름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력대 제국들의 장과급, 총과 대포앞에 무서운 재난을 당하여 왔는가.

인류는 1만 수천치의 전쟁에서 총 36억 4,000여만명을 잃었다. 전쟁사자들은 손실된 물질문화적재부를 금으로 환산하면 너비 75km, 두께 10m되는 금피로 지구를 한바퀴 돌릴수 있다고까지 분석하고있다. 전쟁으로 인한 손실의 거의 전부가 작은 나라들의것이였다다는것은 론박할 여지도 없다.

제단이 이처럼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제국들앞에 정복당하고 굴복당하며

있지 못한다. 나는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경축행사 때에도 조신을 방문하였다.

평양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선전쟁시기 전투가 벌어진 곳곳에 대한 여러 차례의 참관, 많은 전쟁로병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조선전쟁에 관한 자료들과 인류전쟁사를 연구하면서 조선의 1950년대의 전승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 깊은 인상의 파도가 군사기도, 전쟁사기도 아닌 나로 하여금 도덕적권리를 초월하여 모스크바에서 《7.27-승리하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집필발행케 하였다. 하지만 나의 심층에서는 조선전쟁승리의 비결이 김일성주석의 출중한 명도에 있었다는 사실과 전승의 세계사적의미를 세상에 크게 전하고싶은 충동이 더욱 커졌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붓을 들게 하였다는것을 서두에서 부연하게 된다.

머리속이고 사느것을 력사의 승명처럼 감수하여왔다. 물론 제국들의 침략과 정복을 반대하여 일어난 작은 나라들의 피어린 봉기들, 폭동들, 전쟁들이 력사의 전진에 큰 자욱을 남겼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수천년이 흐르는 장구한 기간 인류는 작은 나라라도 대국을 이기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애타게 기다려왔다. 이 갈망에 대답한것이 조선의 전승이었다.

20세기 력사의 대하에 사색의 노를 저어보자.

조선반도가 화염속에서 잤을 때 행성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대국의 정복의 력사가 조선에서 또다시 반복되는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었다. 리유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1세기에는 로마제국, 13세기에는 몽골제국, 19세기에는 대영제국, 20세기에는 도이쎄란드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한 피의 력사를 결코 잊지 않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수천년동안의 이 재난의 반복을 마침내 멈춰세울것이 바로 조선의 전승이었다.

이 전승이 수억만 사람들의 불안과 우려를 가져주었던것이다.

그렇다. 조선의 전승은 비록 나라는 크지 않아도 위대한 정도자를 모시면 대국도 이길수 있다는 것을 이 행성에 장엄히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중대사변으로 보게 되는 두번째 근거는 무엇인가.

원자탄 하면 사람들은 미국대통령 트루먼을 먼저 상기할것이다. 트루먼은 1945년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투하명령을 내렸다.

동서방의 언론들은 트루먼이 원자탄을 투하한 목적이 일본을 항복케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매듭지으려는데 있었다고 분석을 가하였다.

허나 나는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이 행로 조선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핵전쟁준비에 목적을 두고있었다는데 대하여 더 강조하고싶다.

전자의 의미보다 후자의 의미는 결코 가벼운것이 아니었다.

사실상 미국은 조선전쟁을 1950년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포성이 멧기 전에 시작하였던것이다. 그후의 사태발전이 이것을 립증해준다.

미국이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한 다음다음날인 1945년 8월 11일 미국무성과 육군성, 해군성의 《3성조정위원회》가 38°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조선의 이남지역을 감점할 비밀모의를 한 사실, 중요하게는 미국이 1945년 7월 첫 원자탄시험을 한 때로부터 그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왔다는 사실이 큰 무게를 가지고 그것을 실증하고있다.

더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조선전쟁을 개시한 트루먼이 원자탄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핵포괄성명을 발표하였다는것과 제3차 세계대전준비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사실이다.

여기에 《크리스마스총공세》가 총회적으로 열렸던때 트루먼과 기자들사이에서 있었던 문답의 일부를 적어본다.

《대통령, 조선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조선의 새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난 시기 언제나 그렇게 하여왔듯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온갖 수단을 다 취할 용의가 있다.》

《그 수단에는 원자폭탄도 포함되느냐?》

《우리가 소유하고있는 온갖 무기가 다 포함된다.》

《당신은 소유하고있는 무기의 전부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원자폭탄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것을 의미하느냐?》

《원록에 대해서는 언제나 적극적인 고려가 돌려지고있다. ...》

기자회견후 《미국 원자탄사용을 적극 고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즉시 세계에 전해져 사람들을 격분케 하였다.

이처럼 당시 미국은 조선에서의 원자탄 사용을 공공연히 떠들었다.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로씨야교수 까차승스끼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쏘련의 대도시 20개를 원자탄으로 공격할것을 중요한내용으로 하는 전쟁을 1949년에 시작

할것이라는 쿠비문건을 만들었다. 이것을 알아차린 쏘련은 전후복구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였지만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1949년에 원자탄시험에서 성공하였다.

이 사실은 미국이 조선전쟁을 세계화하고 핵전쟁화한다면 쏘련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를 너무나 명백히 해주었다.

다시 본문제이야기로 넘어가자. 외인들은 트루먼이 조선전쟁을 시점으로 조선과 중국, 쏘련을 핵으로 타격하여 7억의 인구를 전멸시킬것을 계획하였다고 전하였다.

미군사기밀기밀들이 공개한 문건들에는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도 조선전쟁에서의 원자탄 즉시사용을 5차례나 주장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전쟁기도는 조선의 전승으로 산산이 부서져나갔다.

미국은 전쟁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을 때마다 《원자탄 즉시사용》이라는 최후통첩장을 내흔들면서 패배의 전멸에서 벗어나려고 모지름을 썼다. 그렇지만 원자탄위협앞에 놀랄 조선이 아니었다. 굴복할 조선은 더욱 아니었다.

조선의 전략전술적위력과 사상정신적위력이라는 두 힘이 미국의 핵전쟁장계를 타격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결이 나온다. 조선이 자기의 전승으로 미국의 핵전쟁기도를 짓부시지 못하였더라면 세계에 핵참화가 휩쓸어졌었다. 반복컨대 제2차 세계대전의 재대기가 가져지기도 했을 전쟁이 일어나 한순간에 인류문명을 구식시대로 되돌아가게 하는 무서운 《핵억울》이 닥쳐왔을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보면 세계적인 판도에서 핵바섯구름을 미리막고 평화의 푸른 하늘을 지켜낸 조선전승의 의미는 참으로 거대한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중대사변으로 보는 세번째 근거를 론할 차례가 되었다.

세계문학사가 남긴 두가지 주장을 먼저 언급하고싶다.

18세기 영국작가 스위프트의 정치론설 《동맹자들의 행동》이 영프전쟁을

### 2. 3대승리철학으로 이기다

조선반도에서 총소리가 멎었다. 그러나 백악관과 펜타곤은 미국을 슬프게 한 전쟁의 책임을 두고 육신타입하고있었다. 이때 미국 《뉴욕 타임스》지에 실린 한 서방군사평론가의 론평이 워싱턴의 책략가들에게 훌륭한 《훈시》를 주었다.

《조선전쟁이 왜 실패하였는가. 월가의 상인들이 애초 복조선을 우습게 여긴것부터가 돌이킬수 없는 오류였다. 그들이 약자인가? 아니다. 전쟁행정이 보여주다시피 그들은 무장장비는 열세였어도 특이한 전략과 전술, 변화무쌍한 전법에 의거하여 싸우는 강자였다. 미국의 장군들만하여도 매뉴게나마 상대한 군통수 김일성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유격전력의 능수라는 점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했다.》

매우 타당성있는 주장이었다고 생각한다.

김일성주석은 벌써 1930년대와 1940년대의 항일대전에서 천재적인 군사전략가로, 천출명장으로 명성을 떨치신분이시였다.

주석께서는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략과 전법, 뛰어난 명군술로 일본의 100만 대군과 싸워 이기시였다.

기고만장의 독술에 의한 미국의 장수들이 이에 대하여 알수 없었다. 패전의 슬픈 눈물은 이 무지가 실어준것이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전쟁에서 탁월한 군사사상을 초적으로 하는 3대승리철학으로 제국주의대군을 굴복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식의 전략과 전법으로 이기는 승리철학으로 전승을 안아오시였다. 주석께서 창시하신 멧가지 전략부터 보자.

기존법에는 적의 불의의 침공을 맞받아나가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다.

인류전쟁사의 녹이 쓴 철문을 열어제끼면 다음의 사실이 첫눈에 띄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 프랑스, 네델란 드, 벨기에, 그리스, 유고슬라비아(당시)를 포함하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히틀러군 불의의 첫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하여 몇주일 지어 며칠만에 점령이라는 지옥을 당하지 않던 안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전쟁에서 기성의 군사공리를 따르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맞받아나가지시였다. 미국이 조선전쟁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큰 병력과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자면 한달이상 시일이 걸려야 한다는것을 통찰하시고 적의 대부력이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전 전선에서 즉시적인 반공격전으로 넘어갈때 대한 명명을 주시였다. 이것은 참으로 명활무쌍한 전략이 아닐수 없다.

병술에는 제2전선을 보조적인 전선으로 설정할것이었다. 1812년의 로프전쟁사의 걸피를 먼저보아도 로씨야에서 기병이나 농민으로 조직된 직후전선이 형성

중결시켰다는 주장이며 19세기 미국의 너류작가 스트우의 소설 《로아저씨의 집》이 남북전쟁을 폭발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두 주장은 사상정신적문제가 전쟁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는 군사가들의 견해에 대한 반증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사상정신력의 역할은 수천년 차오 되어왔다.

반대로 전쟁에서 무기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무기만능론》이 인류전쟁사의 수천년을 지배하여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대로부터 조선전쟁시기까지의 세계전쟁사의 폐지만을 먼저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영국의 《함대우세론》, 히틀러의 《땅크우세론》, 미국의 《함공우세론》이 그에 대한 실증으로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조선의 전승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조선의 전승은 사상정신력이 전쟁승리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과시한 위대한 전승이었다.

다시금 확인하건대 조선의 전승은 전쟁의 운명은 무기가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사상정신력이 결정한다는 진리를 처음으로 깨우쳐준 력사적사건이었다. (조선병사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사상정신력의 승고한 세계에 대해서는 편의상 다음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된지 얼마 안되리 무기도 매우 부족하였지만 사상정신력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힘이 되어 미국의 대포와 땅크, 함선과 비행기를 짓부서버리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였다.

결국 조선의 사상정신난능론이 미국의 《무기만능론》을 무물롭게 만들었다.

세계는 조선의 전승에서 사상정신난능론이 승리하는 새시대를 보았다.

그렇다면 여태껏 서술한 세가지 근거는 무엇을 결론케 하는가.

천출명장 김일성주석께서 안아오신 조선의 전승이야말로 거대한 정치군사적무게를 가지고 인류사의 수천년을 크게 흔들어놓은 중대사변이라는것이다.

되어 전쟁수행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였다. 주석께서는 조성된 군사정세와 산악이 많은 조선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규군원함부대들로 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하도록 하시였다. 이 전략 또한 비범한것이였다.

적극적인 방어전략 역시 전례를 따르던것이 아니었다.

전쟁사의 폐지들에는 방어전은 은폐와 참호, 교통호, 공병장애물에 의한 싸움으로 씌여져있다. 적의 공격에 힘겨 무너진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보아도 총일이 380km의 방어진상에 5,000여명의 영구화력시설물들로 이루어진 《완성된 방어전선의 표본》으로 알려져있었다. 주석의 전략은 이와 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전쟁의 특성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산이 많은 조선의 지형에 맞게 강도를 기본으로 하는 은폐화된 방어전진을 굴설하고 적을 철대면 적극적인 진지방어전략을 세우시였다. 이것 역시 독창적인 전략이다.

이번에는 주석께서 창조하신 많은 전법중 멧가지에 서술의 키를 옮겨보겠다.

세 전투의 승리에 대해서만 주목해보자. 첫번째는 조선해군의 어뢰정 네척이 미국의 중순양함 《블러드》호함선전단을 기습하여 단 세발의 어뢰로 이 함을 침몰시킨 승리이고 두번째는 하루사이에 조선의 프로펠러식비행기 2대가 미전략폭격기 《B-29》들과의 싸움에서 《공중우세》를 2대나 격추한 승리이다.

세번째는 조선인민군 용사들이 쫓겨가는 적들이 《림시수도》로 정해놓고 미24보병사단부대를 진입시켜 방어하고있던 대전을 하루밤사이에 완전히 포위하고 적들을 섬멸한 승리였다.

세 전투승리의 요인적근거는 서로 다르지만 그 승리의 요인은 하나, 김일성주석의 기묘한 전법의 승리라는것이다.

바다에서의 승리부터 보자. 주석께서는 적의 함선진입에 대한 공격은 대규모타격부력의 협동공격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지난 시기의 군사교범을 초월하시였다. 밤이되면 적함선진입이 부추나 해에 정박하고있다는것을 파악하시고 깊은 밤에 접근전, 기습전으로 적함선전단을 타격할때 대한 명안을 내놓으시였던것이다. 이 명안이 《바다의 움직임은 섬》을 수장시였다.

하늘에서의 승리도 그렇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공중전들은 프로펠러식비행기들간의 공중전이었다. 조선전쟁시기 분식비행기의 대대적인 출현은 새로운 공중전법을 기다렸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에 대하여서도 명쾌한 해답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분식비행기가 속도가 빠른 반면에 선회반경이 크다는 약점을 통찰하시고 그것을 리용하여 선회반경이 작은 프로펠러식비행기로 분식비행기를 떨구는 새로운 전법들을 쓰시였던것이다. 이 전법들이 《공중우세》를 태평양 건너의 제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땅우에서의 승리도 마찬가지로 분석된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병사들에는 포위전법은 정면에서 공격하는 부대들과 향익측에서 타격하는 부대들이 일정한 중심에서 합치는 방법으로 실현하는것이라고 서술하고있었다.

그러나 주석께서는 기존법법에 구애되지 않고서도 명활무쌍한 후회전법으로 야간에 미24보병사단을 불의에 신속히 완전포위하고 소멸할때 대한 전법을 쓰시였다. 이 전법이 《상승사단》의 운명을 피멸로 결정지었던것이다.

이처럼 전승은 자기식의 전략과 전법으로 이기는 승리철학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다른 하나의 승리철학을 서술할 차례이다.

국제협약들에는 전쟁에서는 적의 병력과 군사시설물만 공격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 제국들이 있어서는 민간인의 희생과 창조물에 대한 파괴가 문제로도 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세상사람들이 겁이 잡든 4시, 이 4시에 히틀러가 쏘련을 침공했다. 바로 미국도 이 4시에 조선침략의 첫 총소리를 냈던것이다. 그것은 인간중요의 4시, 인간멸살의 4시였다.

그렇다면 조선의 경우는 어떠하였는가.

김일성주석께서는 서울해방을 위한 총공격시간을 5시로 할것을 명명하시였다. (대전해방을 위한 총공격시간도 5시로 할것을 명명하심.) 그이께서는 적들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조건에서 밤에 전투를 하게 되면 인민들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끼칠수 있고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파괴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서울해방을 위한 공격을 날이 밝은 시간으로 정해주시였던것이다.

이두를 4시와 밝은 5시는 단순히 60분이라는 시간상차이만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본다.

인간중요의 4시와 인간사랑의 5시이다. 제국들의 침략전쟁, 정복전쟁에 있어서는 천년이 가도 그 4시가 5시로 될수 없다는것이 나의 주장이다.

나는 두 수자를 생각하며 조선전쟁 첫 기슭에서부터 미국이라는 전쟁마차는 인간중요라는 부정의로 하여 패전의 길로 굴러감으며 조선이라는 수호의 기관차는 인간사랑이라는 정의로 하여 전승의 궤도를 달렸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사랑의 5시가 중요의 4시를 이기고있었다.

김일성주석의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적비행기 3대를 쏘멸한 17살의 한 인민군전사가 부모형제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된 그이께서는 적주에 있는 그의 고향마을에 친히 한계 편대를 보내어 영웅의 부모와 다섯 동생을 구출해오도록 하시였다. 이 구출소식은 온 나라를 눈물로 적하게 하였다. 그 당시 조선인민들은 대서특필하였다는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그토록 사랑하시고 믿어오시던 가장 가까운 전우인 김책대각부수상 겸 선업상이 뜻까지 않게 서거하였다는 비보에 접한 김일성주석께서는는 비통함을 금치 못하시며 떠나간 그를 위해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가별한 전쟁시기라는것을 고려하시어 전우의 명구를 극비밀리에 지방의 어느 한 골짜기에 잘 안치하도록 하고 몇몇동안 특별위수구역으로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야 골짜기에 안치하였던 전우의 명구를 평양에 옮겨오도록 하시였다.

이 이야기들은 사랑과 정을 보석처럼 안고사는 이 너성필자의 마음도 격적으로 쫓겨왔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차디찬 병영생활속에, 전쟁의 폭풍속에 사랑과 정이 파문했던 세계군사, 전쟁사에 종지부를 찍으시였던것이다. 그녀는 사랑과 정의 열기로 병사들의 심장의 문을 열고 인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천출명장이시였다.

무기는 누구나 가질수 있다. 하지만 명장의 사랑과 인민의 보답으로 이루어지는 단결의 정세는 그 어느 나라나 가질수 없다. 조선만이 가진 생세였다.

조선은 또 하나의 승리철학, 사랑과 정으로 이기는 승리철학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또 다른 하나의 승리철학을 논해보자. 세번째 승리철학이다.

조선방문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면서 알게 된 영웅에 대한 이야기기 먼저 떠오른다.

그의 이름은 리수복이었고 나이는 18살이였다. 무명고지탈환전투에서 그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은 육탄영웅이였다.

그가 화염속에서 썼다는 시구들을 잊을수 없다.

《...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이건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고리끼문학대학에서 배운바에 의하면 이는 인간의 사상감정의 분출이라고

하였다. 영웅의 심장에서 뿜어져나온 그 애국정신이 불꽃기가 쏟아져나오는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게 하였다. 영웅의 그 승고한 정신세계가 나의 가슴을 친다.

한 육탄영웅과 그를 취재한 종군기자에 대한 이야기도 떠오른다. 적의 총기화풍을 가슴으로 막고 진격로를 연 영웅은 가슴에 11발의 총탄을 맞고 살아남은 영웅이였다.

이때껏 전쟁사에 이런 육탄영웅은 없다고 본다.

그런데 눈과 얼굴에 중상을 입고 온통 불에 감고있는 한 종군기자가 이 육탄영웅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한다. 종군기자는 전혀 불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또 담가에 실린 몸이였지만 끝내 영웅을 취재하여 세상에 전하였다.

쏘드전쟁때도 쏘련의 많은 기자들이 종군활동을 하였다. 일리야 예렌부르크가 종군하며 쓴 글을 보고 그의 《꿈다들의 신랄성은 까슈라의 일제사격과 같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조선기자의 위훈은 어떻게 격찬하여야 할것인가.

중상당한 기자가 눈과 얼굴을 온통 불에 감은채 불사신의 영웅을 취재하여 병사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한것도 싸우는 조선의 기상이고 기적이 아니겠는가.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글하지 않은 섬에 대한 이야기이다.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세계를 향해 《크로마이트 100-B계획》이라는 암호를 가진 인선상무작전을 기어로 삼아시킬것이라고 콘로사를 썼다. 이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0.66km밖에 안되는 조선의 작고도 작은 섬인 울미도를 점령하여야 하였다.

싸움은 1개의 해안포병중대와 1개의 보병중대로 이루어진 조선인민군과 5만여명의 병력과 수백척의 함선, 1,000여대의 비행기를 가진 미군과의 격전이었다. 조선의 위급지휘관과 미국의 5장군과의 대결이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인민들은 작은 섬은 불바다에 잠기고 바위들이 부서져 가루가 되었으며 바다가 끓고 태양도 검은 화염속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해군용사들의 필사적으로 하여 미군의 울미도점령기도는 3일이나 좌절되었다고 전했다.

세계가 이 좌절에서 본것은 무엇이었는가.

미국 《무기만능론》의 패배와 조선의 사상정신난능론의 승리를 보았다.

미국도서 《맥아더의 수수께끼》의 저자가 조선전쟁의 실상을 맹렬하게 들여다보았다면 패전의 책임을 지고 52년간의 군인생활의 종말을 짓게 된 맥아더의 비극의 대담, 조선전쟁에서의 미국의 패전의 대담을 이 작은 섬의 영웅정신에서도 찾을수 있었을것이다.

조선은 또 하나의 승리철학, 사상정신력으로 대적을 이기는 승리철학을 세계에 보여주었던것이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의 주되는 력점은 무엇인가.

단언컨대 독창적인 전략과 전법으로 이기는 철학과 승고한 사랑과 정으로 이기는 철학, 불굴의 사상정신력으로 이기는 철학, 이 3대승리철학이 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을 이기는 군사적기적을 가져오게 하였다는것이다.

3대승리철학은 동방조선만이 가지고있는 보검이며 백승을 담보하는 투호무기이다.

오늘 세계는 조선전승의 계승을 현실로 보고있다.

1950년대 총포성속의 전쟁에서 3대승리철학으로 대적과 싸워 이기신 김일성주석처럼, 곧 60년간의 투쟁이신 전쟁에서 선군정치로 대적을 무물롭게 하신 김정일영도자처럼 김정원수께서는 이 시각에도 탁월한 선군정도로 조선의 사회주의수호전을 최후승리로 이끄고있다.

장기간의 조미대결사는 세계에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원타격을 받고 녹아나갔지만 미국의 수직스러운 전풍이고 횡포한 미국의 도전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짓부서버리지만 한것이 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풍이라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이 두 전

